이베로아메리카 제13권 1호 [2011. 6] : 95～122

스페인어 과거시제의 효과적 교수방안 연구

심 영 식*
(Sim, Young-Sik)

〈Abstract〉

Estudio sobre la Enseñanza de los Tiempos Verbales del Pasado del Español

El uso de los tiempos verbales del pasado ha sido considerado como una de las partes más difíciles de aprender y adquirir del español por parte de aquellos que lo estudian como lengua extranjera, debido a la complejidad del sistema y a las múltiples variables que existen. Especialmente para los hablantes de lenguas no románicas, como es el caso del coreano, resulta más difícil la comprensión y el uso de este sistema verbal, pues en la lengua materna de éstos es distinto el sistema de los tiempos verbales del pasado. Pero no sólo se puede atribuir esta dificultad a las diferencias que existen entre el coreano y el español, puesto que muchas veces las causas de los errores que cometemos residen en los criterios gramaticales que tenemos como directrices a la hora de utilizar los tiempos del pasado en español. En este estudio no partiremos de los fenómenos linguísticos que existen entre las dos lenguas sino de los criterios que proponen los autores coreanos que han escrito sobre la gramática española en coreano y de los errores

*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E-mail: simjh@sunmoon.ac.kr

cometidos por los aprendices coreanos. En primer lugar, repasaremos los libros de texto escritos en coreano que utilizan los aprendices coreanos y luego tendremos en cuenta los resultados de los análisis de errores relacionados con este tema. Para finalizar, propondremos un criterio más general y al mismo tiempo más aplicable por parte de los aprendices coreanos al usar cada uno de los tiempos verbales del pasado en la práctica: el pretérito indefinido, el pretérito imperfecto, el pretérito perfecto y el pretérito pluscuamperfecto.

[Key Words: Tiempos Verbales del Pasado/ Nivel Textual/ Enseñanza de Español]
[주제어: 과거시제/ 텍스트 범주/ 스페인어 교육]

Ⅰ. 서론

스페인어를 외국어로서 학습, 습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스페인어의 과거시제는 반드시 습득해야 할 언어요소이면서 동시에 그 동사체계의 복잡성과 각 시제의 다양한 적용기준으로 가장 어려운 부분의 하나로 인식되어져 왔다. 외국어 교육이 실제 의사소통을 지향하면서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등 네 가지 언어기능 교육의 주제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일상생활이 중심이 되고 있고 특히 일상생활 중 지나간 과거의 일을 말하는 것은 일상 대화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그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오늘 뭐했니?', '어제 뭐했니?', '주말에 뭐했니?' 등 가장 단순하고 일상적인 질문과 대답의 상황만 생각해보더라도 과거에 대한 서술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고 우리의 학습 및 습득 대상언어인 스페인어에서도 과거서술은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과연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이처럼 중요한 과거서술에 필요한 스페인어 언어요소를 쉽게 이해하고 습득할 수 있었는지 반문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어려움의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한국어에는 없는 스페인어 과거 언어 요소와 스페인어 과거 체계의 복잡성에 그 근본적 원인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필자와 같은 한국인 학습자 대부분이 스페인어로 과거를 서술할 때마다 기준으로 삼았던 문법 지침은 무엇이었고 이 기준의 활용이 과연 효과적이었는지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과거서술이 일상대화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반드시 습득해야할 언어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포함한 한국인 학습자에겐 스페인어 과거시제의 정확한 사용은 그리 용이하지 않았고 가장 어려운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어왔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국내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관점에서 과거시제의 이해 및 활용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한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국어로 된 스페인어 문법서를 토대로 스페인어 과거 시제인 '부정과거', '불완료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1] 등의 전체적인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 살펴보고, 이후 각 시제별로 그 형태 및 용법설명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대안을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 관점에서 제시해 보고자 한다. 스페인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의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은 필자를 포함한 모든 한국인 학습자들이 공통적으로 범해왔던 오류를 줄이고 좀 더 쉽게 과거 시제를 이해, 활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

1) 시제명칭에 관한 논의는 본 논문에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인 교수자 및 학습자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Ⅱ. 한국어 문법서에서의 과거시제의 구성

한국어 문법서에서의 과거시제의 구성을 논하고자 함은 과거시제 중 어떤 것을 먼저 소개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순서는 어떻게 배열하는 것이 효과적인가를 논의하고자 함이다. 이는 교수자의 관점이 아닌 학습자의 입장에서 무엇이 먼저 소개, 설명되느냐에 따라 그 이해도도 달라질 수 있고 그 활용도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며 다음은 각 문법서의 과거시제 구성의 예이다.

· 우덕룡(1995), 종합기초스페인어

11과: 접속법 현재와 명령법
12과: 직설법 과거시제를 제목으로 부정과거, 불완료 과거의 형태와 용법에 관한 설명이 나온다(불완료 과거 용법설명의 맨 마지막 7번에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단문으로 비교).
13과: 재귀대명사, 재귀동사 소개이후
14과: 현재완료, 과거완료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2001), 교양 스페인어

11과: 재귀동사, 현재완료, 과거분사
12과: 현재진행형, 명령문,
13과: 부정과거(규칙동사, 용법), Se의 용법,
14과: 부정과거(불규칙동사, 시간부사에 따른 부정과거와 현재완료 용법의 비교), 감정동사

15과: 불완료 과거, 과거 진행형
18과: 과거완료

· 유연창(2002), Total 스페인어 문법

5장 동사편
1. 동사의 기능과 종류
2. 동사의 시제: 1) 직설법 현재, 2) 불완료 미래, 3) 미래 완료, 4) 직설법 가능, 5) 현재완료, 6) 과거완료, 7)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

· 마상영(2003), 스페인어 문법 한꺼번에 정복하기

11장: 과거 및 불완료 과거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 시제의 차이(단문설명)를 설명).
12장: '미래, 가능법 및 완료시제'에서 미래, 가능법 시제 용법 소개이후 완료시제란 부제아래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 가능법 완료를 차례로 소개한다.

· 최종호 · 김경희(2004), 스페인어 문법

16, 17과: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 (불완료 과거의 형태와 용법에 이어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 단문으로 용법비교)
28, 29과: 현재분사와 과거분사
30과: 완료 시제라는 제목으로 현재완료, 과거완료, 미래완료를 다룬다.

분석해 본 다섯 가지 문법서를 보면 우선 공통점이 과거시제 구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각 문법서마다 그 구성이 다르지만 그 분류에 대한 이유 설명이 있어야하는데 왜 먼저 현재완료를 다루었는지 아니면 부정과거, 불완료 과거를 먼저 소개했는지 그 구성에 관한 언급이 없다. 과거시제의 소개 순서와 분류도 모두 다른데 또 하나의 공통점은 각각의 과거시제가 하나의 과나 연속된 과로 소개되는 연속성이 없이 별도로 언급이 된다는 것이다. 각각의 문법서를 비교해 보면, 우덕룡(1995)에서는 현재완료, 과거완료가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설명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간의 13과에 과거시제와 관련이 없는 재귀대명사와 재귀동사의 소개와 설명이 들어가 있고 마상영(2003)에서도 미래, 가능법시제가 부정과거, 불완료 과거와 현재완료, 과거완료사이에 삽입되어있어 공통된 과거시제에 대한 연속성이 떨어진다. 서울대 서어서문학과(2001)의 과거시제 배치는 책의 구성이 강독 텍스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관련 문법 설명이 이어지기 때문이라 그 원인을 돌릴 수도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연속성이 떨어지고 최종호 · 김경희(2004)에 있어서도 16, 17과에서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다루고 30과에 가서야 현재완료, 과거완료가 소개되고 있다. 유일하게 네 가지 과거 형태의 연속성을 이루고 있는 것이 유연창(2002)으로 현재완료, 과거완료, 부정과거, 불완료 과거가 차례로 소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형태중심의 분류이다 보니 그 소개순서에 무리가 있고 부정과거보다 현재완료 특히, 과거완료가 먼저 설명된 것이 모순이며 현재완료의 용법설명 말미(p.101)와 과거완료의 예문에(p.103) 이미 부정과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예증이다.

각 과거시제의 효과적 교수방안을 알아보기 전 기존 문법서의 전체적인 구성과 순서 등을 분석해 본 것은 각각의 시제도 중요하지만 학습자

의 입장에선 과거 서술에 가장 필요한 언어요소를 포괄적으로 아는 것도 필요하고 어떤 시제 형태를 연속적으로 접하고 익히느냐에 따라 그 이해와 활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포괄성과 연속성을 염두에 두고 일상에서의 활용도를 고려하여 부정과거, 불완료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 순서로 한국인 학습자의 입장에서 그 이해와 활용이 가장 용이한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를 먼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스페인어의 가장 대표적인 과거시제이며 과거 서술에서의 중요성과 사용빈도를 고려한 것이다. 소개 순서에 따른 좀 더 구체적인 당위성은 각 시제별 묘사에서 부가적으로 설명되어 질 것이다.

Ⅲ. 과거시제 교수방안

1. 부정과거

스페인어 과거시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문법서 중에는 이러한 대표적, 절대적 성격으로 단순히 '과거'(pretérito)라 칭하기도 한다. 현재완료와는 관점에 따라 시제의 성격이 다르기는 하지만 불완료 과거와 대칭되는 과거 형태로서 현재완료와는 그 용법에 있어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일단, 스페인어 명칭을 봐도 현재완료는 'pretérito perfecto compuesto', 부정과거는 'Pretérito perfecto simple'로서 '복합(compuesto)', '단순(simple)'이라는 형태적인 차이만 나타날 뿐 '완료과거(pretérito perfecto)'라는 의미로 불완료 과거(pretérito imperfecto)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 즉, 부정과거의 용법을 설명하면서 불완료 과거와 현재완료와의 비교하여 설명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과거

서술에 있어 불완료 과거와 대칭구조를 이루고 있으므로 불완료 과거와 함께 과거의 대표적 형태로 비교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1.1. 형태

형태에 있어 특별히 강조할 것은 스페인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들 대부분이 혼동할 수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사항이며, 첫 번째 악센트에 관한 것은 악센트가 있는 부분을 약간 길고 높게 발음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대화에 있어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과거임을 인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1) 형식적인 면에서 악센트가 다른 동사 시제 형태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표시임을 강조

[yo Presente]	[él Indefinido]
Hablo	Habló
Entro	Entró
Bailo	Bailó

2) Hablamos, Vivimos 형태는 현재의 형태와 일치한다.

1.2. 용법

부정과거의 대표적 용법을 'Pretérito perfecto simple'란 명칭의 의미와 많은 문법서에서의 예에서처럼 단순히 '과거에 이미 끝난, 완료된 행위'라는 완료상(aspecto perfecto)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같은 완료상인 현재완료와는 현재의 시각 또는 관점이라는 차이가 있어 구분이

가능하지만 완료상만을 가지고 불완료 과거와의 구별이 어려운 것은 두 형태의 동사가 이미 과거에서 종료된 것을 언급하는 것이며 다음의 설명과 예에서처럼 완료의 의미로 불완료 과거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 Tradicionalmente se ha puesto de relieve que *cantó* tiene valor aspectual perfectivo. Sin embargo, una perífrasis de *estar* + *gerundio*, por ejemplo, forma verbal que claramente señala un aspecto verbal durativo, imperfectivo, como (전통적으로 부정과거 형태 *cantó*는 완료상으로 그 성격이 부각되어왔다. 하지만,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명확히 동사의 지속적인 상을 표현하는 '*estar* + 현재분사' 형태는):
>
> Ese niño está llorando todo el día (그 아이는 하루 종일 울고 있다)
>
> puede aparecer también en pretérito simple y seguir señalando aspecto durativo (또한 부정과거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지속적인 성격을 가질 수 있다):
>
> Ese niño estuvo llorando todo el día. (그 아이는 하루종일 울고 있었다.) (Gutiérrez Araus 1995, 57)

이처럼 대부분의 한국어 교재에서도 부정과거를 이미 끝난 행위 또는 완료된 행위로 설명하고 있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완료 과거도 마찬가지로 이미 과거에 종료된 것을 언급하는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문장의 범위가 아닌 텍스트 상에서의 부정과거의 대표적 용법을 설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단순히 '과거에 끝난 또는 완료된 행위'라고 그 대표적 용법을 설명하였을 때 그 모호함이 더하고 학습자들

에게 혼동을 주는 기준이 되어왔다면 다른 대표적 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관련이 없고 과거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텍스트 내에서 배경이 되어 멈추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 전체 텍스트 내용전개의 진전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행위'를 서술할 때 사용하는 것이 부정과거라 그 대표적 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요약해 '과거의 상황묘사가 아닌 중심행위 서술'이라 정리해 설명하면 더욱 이해가 용이할 것이다. 다음은 텍스트 내에서 부정과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이다.

> Pues yo conocí a Juan hace cinco años exactamente cuando eramos estudiantes. En aquella época Juan compartía piso con Paco, un compañero mío de clase. Un día Paco me invitó a comer en su casa y nos presentó. Todavía recuerdo perfectamente la primera vez que vi a Juan. Estaba haciendo la comida en la cocina y llevaba unos pantalones negros y una camisa roja. Luego comimos. Tomamos una paella de pescado que estaba buenísima. Y después hablamos de muchas cosas. La verdad es que Juan me pareció una persona interesantísima y me cayó muy bien. Cuando volvía a casa me di cuenta de que sentía algo especial por él. Al día siguiente pensé mucho en él y por la tarde volvimos a vernos. Fui a su casa con la excusa de pedirle un libro a Paco. Luego fue todo muy rá pido y en poco tiempo nos enamoramos.[2)]

밑줄로 표시된 동사는 모두 부정과거로 되어있는데 텍스트 전체적으로 볼 때 배경이나 상황묘사가 아니라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진전을 이루는 행위를 서술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다음과 같은 문장의 예에서 단순히 '과거에 완료된 행위'라는 설명이 더 효과적이라 할 수도 있다.

---

2) Virgilio Borobio, Ramón Palencia(2002), *Ele intermedio,* p.22의 9번 청취자료.

a. Cuando bajaba las escaleras, me encontré una maleta.
b. Cuando bajé las escaleras, me encontré una maleta.

첫 번째 예인 a에서는 'bajaba'라는 불완료 과거를 사용했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갔다는 행위의 끝 또는 완료를 알 수가 없고 두 번째인 b에서는 부정과거 'bajé'를 사용함으로서 '계단을 내려간 후 가방을 찾았다'는 '끝이 난 완료된 행위'로서의 설명이 가능하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다. '완료'로서 부정과거를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예이며 지금까지 가장 많이 사용해온 부정과거의 대표적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앞서 말한 텍스트 관점에서 'bajaba'를 상황으로 'bajé'는 진전된 행위로의 포괄적 설명이 가능하며 부정과거를 단순히 '완료'라는 초점에 맞추었을 때 범할 수 있는 혼동과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기도 하다.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가 스페인어 과거시제의 대표적인 형태이고 상호 대칭되는 용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의 '불완료 과거'에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고자 한다.

2. 불완료 과거[3)]

한국어와 같이 로망스어계가 아닌 모국어를 가진 스페인어 학습자들에게 스페인어의 불완료 과거의 사용은 가장 난해한 부분으로 인식되어 왔고 그 동안 다양한 관점으로 그 해결방안을 모색되어왔다. 그러나 그 동안의 교수방안이 학습자의 입장에서이기 보다는 원어민의 문법 설명을 그대로 번역하거나 인용하는 것에 그쳐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왔는지 고려해보아야 하고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았다면 다른 관점에서의 접근

3) 불완료과거에 대한 내용은 필자가 한국외국어교육학회(2005)에서 발표한 '스페인어 불완료과거의 효과적 교수법에 관한 연구'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 스페인어 외국인 학습자와 특히 한국인 학습자들에게 불완료 과거의 이해 및 사용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무엇인지를 고찰해보고 이러한 오류의 원인을 바탕으로 가장 폭넓고 용이하게 적용되어 질 수 있는 대표용법을 제안해 보며 학습자들에게 불완료 과거의 다양한 용법을 좀 더 쉽게 설명,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형태적인 면에서는 다른 동사 형태와 크게 혼동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2.1. 불완료과거 사용의 오류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중간언어와 오류분석의 대표적 연구는 Sonsoles Fernández의 Interlengua y análisis de errores(1997)이다. 독어, 불어, 일본어,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스페인어 학습자들의 언어를 연구한 것으로 그 결과 분석에 따르면, 스페인어 과거시제의 사용에 있어 오류의 59%가 부정과거, 불완료 과거의 혼동에 있었으며 특히 부정과거를 사용해야 할 때 불완료 과거를 잘못 사용한 오류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일견 모국어에 불완료 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오류가 많았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당연히 모국어에서의 부재로 인한 이해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오류 원인 분석의 결과는 모국어에서의 부재만으로 오류의 원인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 Se incluye en este apartado los errores que proceden de la confusión entre imperfecto y perfecto en frases con valor absoluto, que marcan el desarrollo de la acción y donde se espera el uso del pretérito perfecto. El alumno justifica el uso del imperfecto, en la mayoría de los casos, porque considera que se da un valor durativo....(텍스트 내에서 주요 행위를 서술하고 이에 따른 부정과거의 사용이 필요한 부분에서 불완료 과거를 사용하는 오류가 적

지 않다. 불완료 과거의 사용원인을 학습자는 불완료 과거의 지속적인 성격으로 정당화하고 있다)

Aparte de los ejemplos apuntados, cuento con las explicitaciones por parte de los alumnos del porqué del uso del imperfecto en esos casos. De esas explicaciones y del análisis de los errores se deduce que expresiones como 'el día', 'las vacaciones', 'toda la noche', 'mucho/tanto tiempo', 'durante' llevan a considerar la acción como durativa, y ello arrastra el uso del imperfecto, sin considerar el aspecto perfectivo de la acción ni su valor -absoluto- de información central. En los casos en que no aparecen las expresiones temporales, la explicación del aprendiz insiste en ese mismo valor: *dábamos un paseo* (porque duraba unas dos horas), *intentaba aprender el idioma* (mucho tiempo), *fui a la playa, pasaba muy bien* (todo el día). (앞서 나열한 예와는 별도로 학습자 입장에서 불완료 과거 사용의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학습자가 '그 날', '휴가', '밤새도록', '많은 시간', '동안' 등의 표현에서 행위의 지속적 성격을 이끌어 내고 이 것이 결국 불완료 과거의 사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간관련 표현이 없는 경우에는 문장의 의미에서 지속적 성격을 이끌어 내고 있는 것이다. '산책하다'에서 '두 어 시간'을 '언어를 배우려고 시도했다'에서 '오랫 동안'을 '해변에 갔다', '잘 보냈다'에서 '하루 종일'이란 시간적 개념을 이끌어내 불완료 과거를 사용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Sonsoles Fernández 1997, 128)

즉, 학습자들의 오류를 밝혀내고 그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그 원인에 대한 개별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학습자들이 학습과정에서 불완료 과거의 대표적 용법 또는 자질을 '과거의 지속된 행위'로 인식하여 실제 과거의 지속된 행위를 나타내는 시간표현을 사용하거나 동사의 행위가 지속된다고 생각하여 부정과거 대신 불완료 과거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모국어에서의 불완료 과거 부재라는 원인이외에 학습과정에서 불완료 과거

의 대표 자질을 잘못 이해했다는 것이다. 교수자의 잘못된 인식과 설명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학습자가 사용한 교재 또는 문법서의 대표용법 설명이 그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오류 분석 결과도 그 원인 유추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

> El análisis ha revelado que los aprendices de ambos grupos han mostrado dificultades en el uso de los tiempos pasados. La primera razón que justifica estos problemas es la gran diferencia existente entre los tiempos verbales del pasado en el español y en el coreano, que hace difícil percibir la variedad de pasados que ofrece el español. No obstante, hay otro motivo que Selinker denominó errores de instrucción. Para enseñar los tiempos verbales es posible que los aprendices hayan recibido una serie de enseñanzas que después no se cumplen en todos los casos. Así, por ejemplo, el productor asocia la presencia de 'durante' con un proceso, por lo que acude al pretérito imperfecto al considerar que el valor principal de este tiempo es el de acción en proceso. (분석결과에서 양쪽 그룹 모두 과거 시제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려움의 첫 번째 이유를 복잡한 스페인어 시제이해를 어렵게 하는 한국어와 스페인어의 차이에 둘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Selinker가 명명한 교수 오류라 할 수도 있다. 즉, 시제를 배우는데 있어 학습자는 각 시제에 대해 특정 자질을 교육받게 될 것이고 이는 학습자가 시제 사용시 기준이 되긴 하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습자는 교수자에게 불완료 과거의 대표적 성격을 지속적인 상으로만 설명을 하고 학습자는 이를 바탕으로 '동안'이란 전치사의 존재만으로도 지속적 성격을 결부시켜 불완료 과거를 사용하게 한다는 것이다) (Sim 1999, 259)

Sonsoles(1997)의 분석결과와 유사하며 한국인 학습자들도 불완료 과거

의 대표용법을 지속적인 행위로 인식하여 지속된 시간과 관련된 표현이 나왔을 때 부정과거 대신 불완료 과거를 잘못 사용한 것이다.

2.2. 대표용법

Sonsoles(1997)는 불완료 과거의 그릇된 사용원인을 학습과정에서의 잘못 인식된 기준에 있다고 보고 그 해결방안으로 문장범위를 벗어난 텍스트 범위에서의 불완료 과거의 역할을 강조할 것을 제안한다. 문맥이 빠져있는 가운데 불완료 과거를 설명하기보다는 문맥 속에서 그 대표용법을 찾아보자는 것으로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되며 학습자들의 좀 더 용이한 이해를 위해서는 텍스트 관점에서의 대표용법을 정해보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지속된 행위'를 대신하여 기존의 오류를 줄일 수 있고 불완료 과거의 텍스트 관점의 대표적 성격을 함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대표용법은 '상황묘사'가 적절하다. 텍스트에서 '상황묘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속적'이란 자질이 소개되었던 것이며 다음의 예에서 보듯이 '상황묘사'란 불완료 과거의 특징은 과거의 문법학자들에게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표현으로 가장 주된 특징으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 Andrés Bello: el imperfecto en la narración pone a la vista los adjuntos y las circunstancias. Es la decoración del drama.
- Alarcos Llorach: en la narración, *cantaste* se utiliza como significante de los hechos sucesivos aislados, mientras que *cantaba* sirve para mostrar el indiferenciado plano de fondo sobre el cual se desarrollan y destacan aquéllos.
- Gili Gaya: se emplea en narraciones y descripciones como un pasado de gran amplitud, dentro del cual se sitúan otras acciones pasadas.

- Alcina y Blecua: con el imperfecto la narración es más demorada, sucesiva, minuciosa. Lo llama 'pretérito descriptivo' y al indefinido 'pretérito narrativo'.
- Matte Bon: constituyen rasgos o características de una situación que está tratando de reproducir lingüísicamente.
- Gutiérrez Araus: cuando la narración se detiene y cesa el hilo novelesco para centrarse en la descripción de ambientes, personajes, escenarios, etc.

'adjuntos y circunstancias', 'plano de fondo', 'un pasado de gran amplitud, dentro del cual se sitúan otras acciones pasadas', 'pretérito descriptivo', 'rasgos o características de una situación', 'descripción de ambientes, personajes, escenarios' 등 그 표현이 다르지만 불완료 과거가 텍스트 전개에 있어 중심 행위가 아닌 부수적인 환경, 인물, 상황묘사로서 배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며 이는 외국인을 위한 스페인어 교재에서도 '상황묘사'란 불완료 과거의 대표적 자질로 설명되어지고 있다.

- Ele intermedio: para describir cosas, lugares o personas en pasado.
- Intercambio 1: Al hablar del pasado, para referirse a hechos que no interesa tanto contar en sí mismos, sino más bien para describir una situación que interesa evocar en ese momento.
- Gente 1: Describir circunstancias en un ralato, referidas a diversos aspectos.
- Curso de Perfeccionamiento: costumbre, descripción, cortesía, condicional.

불완료 과거의 또 다른 대표용법인 '과거의 습관'도 전체 텍스트 내에서는 '상황묘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 Estas acciones habituales son una descripción costumbrista en la que se enmarcan las acciones anteriores y posteriores. Se trata de un escenario de otras acciones que tienen el protagonismo narrativo. Estas acciones habituales en imperfecto corresponderían a un segundo plano en el argumento. (이러한 습관적 행위도 결국은 전, 후 중심행위와 구분되는 전형적인 관습의 묘사이다. 과거 서술의 중심이 되는 행위의 무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즉. 불완료 과거 형태로 된 습관적인 행위는 전체 텍스트에서 중심이 아닌 부수적인 배경에 해당된다) (Gutiérrez Araus 1995, 33)

문장 그 자체로는 단순한 '과거의 습관'이지만 전체 텍스트의 전개에 있어서 '과거의 습관'은 텍스트 내용전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배경 또는 상황의 묘사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불완료 과거의 대표용법은 '상황묘사'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3. 불완료 과거의 다양한 용법

불완료 과거의 대표적 용법은 '상황묘사'로 제시하고 나머지 다양한 용법도 설명하되 학습자의 수준도 고려해야하는데 학습자의 언어능력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설명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 초, 중급 수준

1) 상황설명

A: ¿Qué te ha pasado?
B: Tuve un accidente de coche
A: No me digas. ¿Cómo fue?
B: Pues era un domingo, era de noche y yo estaba muy cansado y había un camión parado y ¡zas!

2) 과거의 습관

Cada vez que la veía, se me alegraba la vida.

과거의 습관을 설명하는데 있어 위의 예도 좋지만 'Antes + 불완료 과거, ahora + 현재'라는 전형적이고도 많이 사용되는 구문형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무엇보다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응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이다.

Antes no le gustaba ir a los restaurantes, pero *ahora* nunca come en casa.
Antes no tenía amigos, pero *ahora* sale todas las noches con sus amigos.

3) 예의 표현 (cortesía)

A: ¿Qué deseaba?
B: Quería un bolso como ésos del escaparate.

4) 실현되지 않은 과거의 행위 (...하려고 했다)

Iba a hacerlo, pero no pude.

5) 간접화법 (estilo indirecto)

Dijo que estaba ocupado.
Paloma dijo que pronto se iba de vacaciones.

· 고급수준

6) 가정법에서 가능법 대용

Si tuviera dinero, compraba esta casa.
Yo, en tu lugar no lo hacía.

7) 놀라움의 표현 (화자의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Pero, no tenías clase hoy?
¡Anda! Si eras tú... ¡Qué alegría!

8) 비난을 위한 감탄 표현 (exclamativo, para hacer reproches)

¿Qué creía usted?

9) 어린이들의 상상, 놀이 표현 (imperfecto lúdico o de juego)

Yo era Blancanieves y tú el príncipe, ¿vale?

이상과 같이 불완료 과거의 다양한 용법을 수준에 따라 나누어 본 것은 6)에서 9)까지의 용법은 직접 응용하여 사용하기가 쉽지 않고 일반 스페인어 학습자가 사용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고급 수준의 정도에서 설명해야 할 것이며 이 전 5)까지의 용법은 초, 중급 수준에서 이해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에서의 사용빈도도 높다고 할 수 있다.

3. 현재완료

3.1. 불완료 과거와의 대칭

스페인어 과거시제의 대표적인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설명이후 현재완료의 도입 및 설명이 필요한데 이는 무엇보다 부정과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서술에 있어 불완료 과거와 대칭되는 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있어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와 비교, 설명이 없이 현재완료를 소개하는데 이는 현재완료를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 내에서 현재완료는 부정과거와 마찬가지로 과거에 있어 텍스트 내용전개의 진전을 이루는 중심이 되는 행위를 서술할 때 사용하는 시제이며 불완료 과거와 대칭되는 형태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진 두 가지 텍스트를 예로 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텍스트 A

Querido Evaristo:

No he podido ir con vosotros porque he estado toda la noche con Elena. Sí, aquella profesora de español que **era** tan guapa y que me

gustaba tanto. Ya sabes que desde que la conocí hemos salido algunas veces a tomar café, que ella siempre me **hablaba** de sus alumnos y que yo muchas veces **intentaba** sacar el tema de los novios sin resultado. Pues esta tarde hemos ido al cine y la he invitado a cenar después en mi casa. Lo **tenía** todo preparado: una comida perfecta, velas, música romántica... Pero Elena ha llegado a casa con un chico. Yo no **sabía** qué hacer ni qué decir, pero ella ha aclarado inmediatamente la situación: **era** su novio. Al final ha sido una cena un poco accidentada, como ves.

텍스트 B

Conocí a Elena en Berlín. Yo **estaba** en una oficina de la embajada y ella **trabajaba** como profesora de español en una universidad. Elena **tenía** entonces unos 25 años. **Era** un poco más joven que yo. Ella **estaba** muy contenta con su trabajo allí, y muchas tardes **salíamos** a tomar un café para hablar de sus alumnos. Me **gustaba** mucho aquella chica. Un día salimos para ir al cine y la invité a cenar a mi casa. Lo **tenía** todo preparado: una comida perfecta, velas, música romántica... Pero ella llegó a casa con un chico. Yo no **sabía** qué hacer ni qué decir. Entonces ella aclaró la situación: **era** su novio. Al final fue una cena estupenda. La comida, quiero decir. (Lourdez Miquel 2005, 134)

텍스트 A, B의 내용은 거의 비슷하나 텍스트 A는 현재라는 공간에서 말한 것이고 텍스트 B는 과거 시점(cuando estaba en Berlín)에서 말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텍스트에서 현재완료, 부정과거가 각각 불완료 과거와 어떻게 대칭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텍스트 A에서는 밑줄로 표시된 현재완료형이 텍스트 전개의 중심 행위를 서술하고 있으며 진하게 표시된 불완료 과거는 인물묘사 등 배경이 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텍스트 B에서는 밑줄 친 부정과거가 텍스트 A에서의 현재완료형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완료 과거와 대칭이 되면서 부정과거

와 현재완료의 유사성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3.2. 현재완료의 유용성과 용법

사용빈도나 과거 서술에 있어 차지하는 비중에 있어 스페인어 과거의 대표적 형태는 부정과거라 할 수 있으나 한국인 학습자 입장에서 현재완료의 사용은 아주 유용하다. 우선, 대부분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현재완료에 대한 영어 학습 경험이 있어 그 형태와 용법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 접근하기가 쉽고 그 형태의 용이성으로 실질적 사용도 어렵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또 불완료 과거와 대응되는 용법을 가진 부정과거와의 의미의 차이가 크지 않아 부정과거의 대용형태로서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물론 현재의 관점 등이 가미되지만 다음의 설명과 같이 지역적 차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 Tanto el pretérito perfecto compuesto (*he amado*) como el pretérito perfecto simple (amé) denotan acciones medidas directamente y acabadas o perfectas. Esta coincidencia acerca la significación de ambos tiempos. Así se explica que varias lenguas romances los confundan en el uso real, aunque la lengua literaria procure mantener sus diferencias, como ocurre en francés y en italiano. En España se conserva bien en el habla oral y literaria el uso que hemos descrito en el apartado anterior; pero Galicia y Asturias muestran marcada preferencia por *canté*, a expensas de *he cantado*. Frases como *Esta mañana encontré a Juan y díjome* son características de aquellas regiones, contra el uso general español, que en este caso diría sin vacilaciones *he encontrado y me he dicho*. También en gran parte de Hispanoamérica predomina absolutamente *canté* sobre *he cantado* en el habla usual, aunque entre los escritores convivan la forma simple y la compuesta en proporción variable. (현재완료와 부정과거는 둘 다 이미 끝난 완료된 행위를 언급할 때 사용하며 이와 같은 의미의 유

> 사성은 로망스어 사용의 많은 경우에 있어 혼동을 야기하곤 한다. 이탈리아어와 불어의 경우에 있어서는 문어체에 있어 그 차이를 유지하고 있으며 스페인에서는 구어체와 문어체에서 앞서 언급했던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갈리시아와 아스뚜리아스 지방에선 'he cantado'보다 'canté'를 선호하여 'Esta mañana encontré a Juan y díjome' 같은 표현이 이 지역의 특징이 되고 있어 이런 경우에 있어 당연히 'he encontrado y me he dicho' 라고 할 스페인의 일반적 특징과 대조되고 있다. 또한 중남미의 많은 지역에서 'canté'가 'he cantado'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고 작가들의 문체에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두 가지 형태가 공존한다 말 할 수 있다.) (Real Academia Española 1973, 466)

요약하면 그 의미의 유사성으로 혼동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있고 대체적으로 스페인 구어체에서는 현재완료의 형태가 그리고 중남미에서는 부정과거의 사용빈도가 높다는 것인데 한국인 학습자 입장에선 부정과거의 형태를 완전히 숙지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현재완료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당연히 현재의 관점과 현재의 공간이라는 뉘앙스를 띄겠지만 일반적인 대화에서 과거서술이라는 커뮤니케이션 목적을 달성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며 이는 완료와 부정과거 의미의 차이는 현재완료, 부정과거와 불완료 과거의 의미차이만큼 크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용법에 있어서는 영어 현재완료의 대표적 용법인 완료, 계속, 경험, 결과를 그대로 응용하는 것도 좋고 포괄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과거에서 현재에도 지속되거나 현재의 일부로 생각하는 있는 일을 서술할 때 사용하는 시제라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완료: He dicho.
- 계속: He estado siempre en Seúl.

· 경험: He estado dos veces en España.
· 결과: Corea ha progresado mucho.

위의 네 가지 모든 예가 모두 과거의 일이 현재에도 지속되거나 현재의 일부로 생각되는 일을 언급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이 이미 끝난 일일지라도 현재의 공간에 포함시키는 부사를 통해 (hoy, este mes, durante el siglo actual) 화자가 현재의 일부로 생각하여 현재완료로 표현하는 예는 중남미가 아닌 스페인의 스페인어의 특징이자 현재완료와 부정과거 차이의 좋은 예이다.

> · Hoy me he levantado a las siete.
> · Este año ha habido buena cosecha.
> · Durante el siglo actual se han escrito innumerables novelas. (Real Academia Española 1973, 466)
>
> En el español peninsular
>
> a) Se emplea el *pretérito perfecto* para referirse a una acción o estado producidos en el *presente ampliado*, es decir, en un periodo de tiempo que el hablante *considera plano actual, perspectiva de presente*.
> b) Se emplea el *pretérito simple* para referirse a una acción o un estado producidos en un periodo de tiempo que el hablante *considera plano inactual, perspectiva de pasado.*(스페인의 스페인어에서는 확대된 현재에 일어난 행위나 상태, 즉 화자가 현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언급할 때 현재완료가 사용되며 화자가 과거의 범주로 생각하는 시간에 일어난 행위나 상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부정과거를 사용한다.) (Gutiérrez Araus 1995, 26)

4. 과거완료

그 형태가 조동사 'haber의 불완료 과거 + 과거분사'로 이루어져 불완료 과거의 자질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 실제적 용법은 불완료 과거와 하등 관계가 없다. 주 용법이 다음의 예와 같이 과거의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 사건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학습자입장에서 그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할 수 있다.

Ya me lo habían contado, por eso no me sorprendió.

'이미 내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다'는 의미로 과거 기준 시점이 놀란 것이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 그 이전에 발생한 행위라 설명하면 그 이해가 용이하고 다음과 같은 간접화법에서의 사용도 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 이해가 그리 어렵지 않다.

Nuestros amigos contestaron que habían perdido la apuesta.

다만, 다음과 같이 부정과거를 대신해 사용되어 일이 빠르게 진행됨을 표시하거나 또는 가정법 과거완료의 종속절 동사를 대신할 수 있으나 이는 초, 중급의 학습자들에겐 난이도가 높은 용법의 설명이다.

Le pedí que lo trajera y al poco rato me lo había traído.
Si hubiéramos estado de viaje esos días, no nos había sucedido ese percance.

Ⅳ. 결론

스페인어 과거시제는 필자를 포함하여 외국어로서 스페인어를 배우는 다수의 한국인 학습자들이 상당히 어렵게 인식하는 문법요소인 동시에 일상생활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반드시 습득해야 할 부분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스페인어 과거시제의 난점과 활용도를 고려하여 효과적인 교수 방안을 제시해 본 것이다. 스페인어 과거시제가 한국어와는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기도 하지만 학습자들이 과거시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지침으로 삼고 있는 각 시제의 활용기준 즉 기준이 되는 용법설명이 그 오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인식아래 효율적인 교수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많은 학습자들이 참고하는 문법서에서의 과거시제 교수방안을 검토해보고 포괄적으로 어떤 순서로 가르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고 이후 각 시제별로 교수자 관점이 아닌 학습자 관점에서 대표용법을 설명하고자 했다. 부정과거, 불완료 과거, 현재완료, 과거완료 등각 시제별로 한국인 학습자에게 어떤 점이 용이하고 어떤 점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무엇인지 고려해보고 기존과는 다른 시각에서 학습자의 이해를 돕고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오랜 시간 스페인어를 학습한 사람들에게도 가장 난해한 문법요소이기에 좀 더 효과적인 교수방안을 제안해 본 것이다. 어렵게 인식되어 왔고 그 난점이 한 번에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본 논문을 포함한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반복되었던 오류가 줄어들 것이고 좀 더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될 것이다.

참고문헌

마상영(2003),『스페인어 문법 한꺼번에 정복하기』, 송산출판사.

서울대 서어서문학과(2001),『교양 스페인어』, 문예림.

심상완(2003),『한국어-스페인어 번역과 작문』, 경진문화사.

우덕룡(1995),『종합기초 스페인어』, 삼지사.

유연창(2002),『Total 스페인어 문법』, 삼영서관.

최종호, 김경희(2004),『스페인어 문법』, 울산대학교 출판부.

Alarcos Llorach, E.(1994), *Estudios de gramática funcional del español,* Gredos: Madrid.

Bello, A.(1984), *Gramática de la lengua castellana,* Editorial EDAF: Madrid.

Fernández Ramírez, S.(1986), *Gramática Española. 4. El verbo y la oración.* (Vol. ordenado y completado por Ignacio Bosque), Arco/Libros: Madrid.

Fernández Sonsoles(1988), "Análisis de errores en el aprendizaje del español: el pretérito imperfecto", en *La enseñanza de la Lengua con fines específicos. Actas del V Congreso Nacional de Lingüística Aplicada.* Universidad de Navarra, pp.213-227.

Fernández Sonsoles(1997), *Interlengua y análisis de errores en el aprendizaje del español como lengua extranjera,* Edelsa: Madrid.

Gili Gaya(1987), *Curso superior de sintaxis española,* Bibliograf: Barcelona.

Gutiérrez Araus(1995), *Formas temporales del pasado en indicativo,* Arco/ Libros: Madrid.

Bosque, I.(1990), *Tiempo y aspecto en español,* Cátedra: Madrid.

Lourdes Miquel López(2005), *Gramática básica del estudiante de español,*

Difusión: Barcelona.

Lourdes Miquel y Neus Sans(1990), *Intercambio 2,* Difusión: Barcelona.

Matte Bon, F.(1992), *Gramática comunicativa del español,* Edelsa: Madrid.

Moreno C. y Tuts M.(1991), *Curso de perfeccionamiento,* SGEL: Madrid.

Neus Sans, Ernesto Martín Peris, Pablo Martínez Gila(1997), *Gente 1,* Difusión: Barcelona.

Real Academia Española(1973), *Esbozo de una nueva gramática de la lengua española,* Espasa Calpe: Madrid.

Sim, Y. S.(1999), "Cohesión, coherencia e interlengua," Tesis doctoral, Facultad de Filología. Universidad Complutense de Madrid.

Virgilio Borobio, Ramón Palencia(2002), *Ele intermedio,* Ediciones SM: Madrid.

논문투고일자: 2011년 4월 26일
심사완료일자: 2011년 6월 27일
게재확정일자: 2011년 6월 29일